

뉴스홈 | 최신기사

늘 험난한 '월드컵 본선 가는 길'...카타르도 쉽지만은 않았다

송고시간 | 2022-02-02 00:55

최송아 기자
기자 페이지

『에선 도중 감독 교체』 이번엔 피했지만...벤투호도 굴곡 끝 본선 확정



1954년 스위스 월드컵 헝가리와와의 경기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기까지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많았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도 최종예선에선 비교적 순항하며 본선행을 완성했지만, 굴곡이 없지는 않았다.

한국은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월드컵 도전에 나섰다.



당시 한국과 일본만 참가한 예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대표팀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두 경기 모두 원정으로 치르는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은 1승 1무로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엔 32년 동안 한국에 월드컵 본선 무대가 허락되지 않았다.
1986년 멕시코 대회에야 복귀해 이때부터 이번 카타르까지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이어졌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예선은 특히 험난했던 걸로 꼽힌다. '도하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다.

카타르 도하에서 모여 열린 최종예선에서 조 3위로 본선 진출이 불투명했던 한국은 최종전에서 북한을 3-0으로 물리쳤고, 같은 시간 이라크에 종료 직전 동점 골을 내주고 비긴 일본에 골 득실로 앞서 가까스로 본선에 진출했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음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도쿄=연합뉴스) 베제만 기자 =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98 프랑스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3차전 한국-일본전. 경기 종료 4분 전 이만성의 역전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한국 벤치에 앉아있던 감독, 코치, 선수들이 자리를 박차며 그라운드로 뛰쳐나오고 있다. 1997.9.28

다음 1998년 프랑스 대회 최종예선은 6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한 가운데 '도쿄 대참'이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고비로 여겨진 일본과의 3차전 원정 후반 막바지 두 골을 연이어 뽑아내며 2-1 역전승을 거뒀다.

개최국으로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06년 독일 대회를 앞두고는 2차 예선에서 최약체 몰디브와 0-0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아쉬운 성적 속에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사임하기도 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를 앞두고는 3차 예선에서 대표팀이 북한과 두 차례 맞대결을 0-0으로 비기고, 약체 요르단과 홈 경기에서도 2-2로 비기는 등 아쉬운 성적에 비판을 받았다.

최종예선에 올라서도 첫 경기에서 북한과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8경기 무패(4승 4무)로 본선에 올라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길엔 2011년 11월 3차 예선의 레바논 베이루트 원정이 대표적인 위기였다.

당시 한국이 레바논에 1-2로 저 탈락 위기에 몰리자 조광래 감독이 3차 예선이 끝나기도 전에 경질됐다. 최종예선에서도 가까스로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도하=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A조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2-3으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17. 6.14 hkmpooh@yna.co.kr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브라질 대회 직후 지휘봉을 잡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3년 가까이 대표팀을 이끌었으나 최종예선 들어 약체 시리아와 0-0으로 비기거나, 중국 원정에서 0-1로 잡히는 등 부진한 경기력으로 경질론에 휩싸였다.

카타르와의 8차전에서 2-3으로 달미를 잡히는 이른바 '도하 참사'로 본선 직행이 위태로워지자 결국 경질을 피하지 못했다.

'소방수' 신태용 감독 체제로 남은 2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마지막 경기 상대 결과까지 지켜본 끝에 어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렵게 9회 연속 본선행을 결정지었다.

신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마치고 떠난 뒤 2018년 9월부터는 파울루 벤투 감독 체제로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완주했다.

2차 예선을 5승 1무 조 1위로 통과했고, 최종예선은 8차전까지 6승 2무의 무패 행진으로 본선에 안착했다.



축구대표팀,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확정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표면적으로 성적은 훌륭했으나 2차 예선까지는 벤투 감독의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빌드업 축구와 보수적인 성향이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2차 예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 0-3 완패도 겹쳤다.

2차 예선 잔여 3경기를 연승으로 마무리한 뒤 지난해 9월 이라크와의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를 0-0으로 비겼을 때도 고비였다.

이후 레바논, 시리아를 연파하고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10월 까다로운 이란 테헤란 원정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1-1로 비긴 것 등을 계기로 벤투호를 보는 시선이 다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축구는 11월 최종예선 경기, 새해 평가전과 최종예선에서 순항을 이어가면서 고무된 분위기 속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역사를 완성했다.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1954 스위스 월드컵 (감독식 감독)	2패 (조별리그 탈락)
	1986 멕시코 월드컵 (김정남)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이희택)	3패 (조별리그 탈락)
	1994 미국 월드컵 (김호)	2무1패 (조별리그 탈락)
	1998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02 한·일 월드컵 (거스 하딩크)	4승1무2패 (4위)
	2006 독일 월드컵 (리 아도보르트)	1승1무1패 (조별리그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하정무)	1승1무2패 (16강 진출)
	2014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신대환)	1승2패 (조별리그 탈락)
	2022 카타르 월드컵 (파울루 벤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역대 중 11회)

자료/대한축구협회
반종빈기자 2022.02.02

[그래픽]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bjbi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감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2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태개 예열?
41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김진수-권창훈 골' 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종합2보)
'3년 5개월' 최장수 벤투의 독심, 태극전사 맞출듯 압하다
'이제는 본선이다...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
종가 잉글랜드-아트사커 프랑스도 못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캡틴' 손흥민의 세 번째 월드컵...브라질-러시아의 눈물 지울까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0:55 송고

#월드컵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뿔뿔뿔...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를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관리/제휴문의